

The Deceptiveness of Hostility: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October 12, 2023

Aloha MPC ‘Ohana,

During his second voyage to the Pacific in 1774, Captain Cook and his crew sighted the island of Niue. The people of Niue are Polynesians, and the flag of their country does today fly outside the Polynesian Cultural Center in La’ie.

But you won’t find “Niue” inside the Polynesian Cultural Center, perhaps beside “Tonga” or “Samoa” (two of Niue’s closest neighbors). Because in actual fact, Niue is a tiny place. The whole country is just one very small island with a population of only about 1200 people.

Because their island is and always has been so small, in order to scare away any outsiders who might come to conquer them, in days of old the Niueans developed an interesting habit. Upon sighting a strange canoe on the horizon, the Niueans would immediately eat as many red bananas as they could. Doing so temporarily stained their teeth red.

Then, as the canoe got closer to land, all the Niueans would stand on shore, waving spears and clubs in the air, while viciously snarling and showing their red teeth to the outsiders. From a distance, it looked like the Niueans’ teeth were dripping with fresh blood, which was meant to communicate to outsiders that they were vicious cannibals who would surely eat anyone who dared make landfall on their island.

It was all a ruse, in other words, meant to scare away anyone who might be a potential threat.

Upon sighting Captain Cook’s ship offshore, the Niueans employed this same tactic. And it worked! The British took one look at their blood red teeth, assumed the Niueans were man eaters, and sailed away.

When people feel small, threatened, or vulnerable, sometimes they do try to protect themselves by appearing hostile. This is what the Niueans were up to when Captain Cook got too close for comfort in 1774. And although it worked for them on that occasion, it didn’t work forever. Because within a generation, the British returned. And this time they not only came ashore, they stayed. Niue eventually became part of the British Empire, then passed to New Zealand, and only regained its independence in 1974 (exactly 200 years after Captain Cook).

Closer to home, I look at some of the words and expressions of hostility which people in our society seem to display at times toward one another. And I can only assume that some of this is being done because people feel threatened in some way or another by others. But whatever the cause (real or imagined), I don’t think it’s working for any of us.

Because the Niueans scaring off Captain Cook and his crew in 1774 really was a historical outlier. Most of the time, the reverse seems to come to a pass. Because more often than not, manifesting hostility does not end up making anyone (feel) safer. Instead, it often just engenders reciprocal hostility. And so a cycle of escalating threats and counter-threats ensues, to no one's greater good.

All of which means, I think, that there has to be a better way. And the good news is, the Bible tells us that there is indeed a better way. Because the Bible tells us to pay attention, not so much to what we may put into our mouths (red bananas or otherwise). Instead, the Bible tells us to focus on what we allow to come out of our mouths – in the form of words.

“Let no unwholesome talk come out of your mouths,” scripture says, “but only what is useful for building others up, where there is need, so that your words may give grace to those who hear you” (Ephesians 4:29).

So, if that's right, then maybe if everyone – myself included – would resolve to snarl a little less and to speak words of grace instead, then perhaps we'd all not only feel a little safer. We would actually be safer. And happier. And holier too. All of us together, on this tiny little island of a planet called Earth.

Me ke aloha,
Pastor Ron

적대감의 기만성: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1774년 두 번째 태평양 항해 중에 쿡 선장과 그의 선원들은 니우에 섬을 발견했습니다. 니우에 사람들은 폴리네시아인들이며, 그들의 나라 국기는 오늘날 라이에(La'ie)에 있는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 밖에 게양됩니다.

그러나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 내부에서는 ”통가”나 ”사모아”(니우에의 가장 가까운 이웃 두 곳) 옆에 ”니우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니우에(Niue)는 작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전체가 인구가 약 1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일 뿐입니다.

그들의 섬은 항상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하려 올지도 모르는 외부인들을 겁주기 위해 옛날에 니우에인들은 흥미로운 습관을 발전시켰습니다.

지평선에서 이상한 카누를 발견하자마자 니우에인들은 즉시 가능한 한 많은 빨간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치아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카누가 육지에 가까워지자 모든 니우에인들은 해안에 서서 공중에 창과 곤봉을 휘두르며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붉은 이빨을 외부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니우에인의 이빨에서 신선한 피가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그들이 감히 그들의 섬에 상륙하는 사람은 누구든 잡아먹을 사악한 식인종임을 외부인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계략, 즉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겁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앞바다에서 쿡 선장의 배를 발견하자 니우에나인들은 이와 동일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그들의 피처럼 붉은 이빨을 보고 니우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생각하고 항해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작거나, 위협을 받거나, 취약하다고 느낄 때 때때로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1774년 쿡 선장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때 니우에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영원히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 안에 영국인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은 해변에 왔을 뿐만 아니라 머물렀습니다.

니우에는 결국 대영제국의 일부가 되었고, 그 후 뉴질랜드로 넘어갔고, 1974년(쿡 선장으로 부터 정확히 200년 후)이 되어서야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집 가까이에서 나는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때때로 서로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적대적인 말과 표현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실제이든 상상이든) 우리 중 누구에게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74년에 니우에인들이 쿡 선장과 그의 선원들을 겁주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특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반대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적개심을 표명한다고 해서 누구도 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것은 종종 상호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더 큰 이익이 되지 않는 위협과 반격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모든 것은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로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입에 넣는 것(빨간 바나나 등)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 입에서 단어의 형태로 나오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 4:29)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맞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으르렁거리는 것을 조금 줄이고 대신
은혜로운 말을 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거룩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작은 행성의 섬에 함께 있습니다.

나 알로하,
론 목사